

미 농무부, 돼지가격 안정위해 본격 시 국 장개입

미국 농무부가 돼지가격 안정 및 공급과다를 방지키 위해 본격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 정부의 이같은 긴급조치로 인해 수출용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정부는 관련업체와 협력, 돼지 가격상승을 위해 우선 1차적으로 4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목전지, 후지부위를 수매키로 했으며, 미 농무부는 국방부 및 교도소 등 각 미 정부기관에 돼지고기 구입을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국내 급식용으로 1억2천만 달러의 돼지고기 구매계획을 설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미국의 돼지고기 팩커들은 최저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등 가격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안정과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 농무부는 수요증가에 대비, 도축장의 토, 일요일 등 휴일에도 작업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 농무부는 최근 소련으로 5만톤에 달하는 돼지고기 식량지원에 힘입어 일본과 멕

시코 수출가격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올봄 또는 여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수수 재고량 전년비 11% 증가

미국 농업통계청은 지난해 12월 1일 현재 기준 미국 사료곡물 옥수수 재고량이 80억5백만 부셀로 97년 같은 기간대비 1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주요 사료곡물 재고량은 대두류의 경우 97년 같은 기간대비 9%가 증가한 21억9천만 부셀을 나타내고 있다. 또 밀 재고량은 18억9천만 부셀로 97년 같은 기간대비 17%가 증가, 90년 이래 가장 높은 재고량을 나타냈다.

한편, 보리 재고량 역시 2억6천2백만 부셀로 97년 같은 기간대비 8%가 증가했다.

일본 국내산 강세, 미국산 둔속 선호

지난해 일본의 축산물 유통동향은 국내산 육류의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O-157 발생을 계기로 식육의 안전, 안심추구 경향에 따라 쇠고기를 중심으로 국내산 육류유통 비중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식육통신사가 최근 대형유통업체 34

개사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실시한 결과,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돈육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매출구성비는 국내산이 87.9%를 차지했다. 수입돈육 중에서는 34개사 모두 미국산을 가장 많이 취급, 미국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

특히 미국산 돈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 우수 ▲가격저렴 ▲물량확보 용이 ▲단품구매 가능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어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 돼지고기 수입 99% 증가

일본의 98년 11월 식육수입량은 10월보다 24%가 증가한 19만7천톤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보면 돼지고기 66%, 쇠고기 4%, 닭고기가 15%씩 각각 증가했다.

총 53,500톤을 수입해 10월보다 66%나 증가한 돼지고기는 한국에서 9,500톤을 수입해 10월보다 99%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 돼지고기 가격 가파른 강세 반전

EU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성수기인 봄철로 접어들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돼지고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에 들어서면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양돈강국들은 물량부족,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가파른 가격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덴마크의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

로 인해 최소시장 수급유지를 전제로 수출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달새 부위별 톤당 전지의 경우 5백 달러가 오른 1천5백 달러대, 목살 7백~8백 달러가 오른 3천2백~3천5백 달러대, 삼겹살 2천6백50~2천7백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팩커들이 정상적인 구매에 나서면서 덴마크산 삼겹살은 1만톤 이상 구매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육 전체 생산량 0.5% 증가

EU국가들의 올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0.5%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측면에서 각 국들은 정상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 중 유럽산이 많은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EU국가들의 돼지고기 재고량(수출보조금에 의한 비축량)은 약 12만톤에 달하고 있다. 또 각 국의 생산량도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유럽산의 돼지고기 가격은 회복세 또는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의 수출가격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지원금 유로화로 변환

EU의 11개 가맹국의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사용되면서 EU공동농업정책(CAP)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화의 도입으로 CAP에 기초한 보조금 단가나 지원금 단가 등은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유럽통화단위 ECU

가 아니라 단일통화인 유로가 설정, ECU와는 1:1로 교환된다.

이에 따라 유로화의 통합정책에 따라 각국의 보조금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교환비율이 낮아질 경우 보조금을 보상하는 제도를 EU CAP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태국 홍콩에 수출된 돈육에 잔류물질 확인

태국산 육류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얼마전 태국산 닭고기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가 검출돼, 일본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이어 최근 홍콩 공중위생당국이 실시한 식품검사에서 태국산 돼지고기의 잔류물질이 확인되었다.

이번 태국산 돈육 잔류물질 문제는 최근 홍콩 농업단체 등이 구제역 감염 우려가 있는 돼지고기 수입을 막는다며 홍콩 주재 태국 영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이후에 터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태국산 돈육에서 발견된 잔류물질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물질인 베타 아고니스트 극소량으로, 이 물질을 양돈업자가 돼지에 사용하면 돼지고기의 살코기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천식환자에 대한 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태국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양돈농가를 등록제로 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1일부터 이 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잔류물질 건으로 태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홍콩 돈육 수입 시장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말레이시아 돈육 홍콩으로 시험 수출

말레이시아는 최근 싱가포르의 경제침체로 수출이 감소되자, 홍콩을 제2의 수출

시장으로 정하고 돼지고기 시험수출에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말 400톤의 돼지고기를 시험수출하는데 성공했으며, 11월에는 냉장육 4톤 및 냉동육 16톤을 포함한 총 2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기로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돼지고기 수출은 대부분 싱가포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97년 수출실적은 생체환산으로 103만두분이다.

그러나, 이번 말레이시아산 돼지고기의 홍콩으로의 수출은 본래에도 오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 가금육 소비가 돼지고기 소비를 감만 소시켜

돼지고기는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육류이다. 최근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소득향상으로 육류소비는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96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지육기준)은 40.6kg으로 '86년의 34.7kg에서 17% 증가했지만, 육류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감소한 54.1%이다.

육류소비 전체가 증가함에도 돼지고기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집오리 등을 포함한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금육의 소비량은 10년간 19.8kg에서 30.5kg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율은 돼지고기 소비증가율보다 크게 웃도는 54.0%이다. 한편, 쇠고기 소비는 절대량도 증가량도 적다.

구제역 이후에도 소매가격은 비교적 안정세 유지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소위 「폐쇄시장」에서도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육돈 도매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배이상 급등한 때에도 소매가격은 「로스」, 「등심」 및 「삼겹살」이 각각 13.9%, 2.3%, 및 18.4% 상승에 그쳤다. 또한 일본수출 금지 및 돼지 도축두수 감소로 일시부족 현상이 내장물에서도 나타나 육돈 도매가격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호 1천8백만 호주달러 양돈산업 장기 주 지원대책 및 지원방안 검토

Mark Vaile 신임 농림수산장관이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농업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한 바에 의하면 호주의 이후 양돈산업계는 지난 98년 11월 생산성 위원회의 돼지고기 Safeguard 조치 검토보고서 발표에 따라 호주 정부당국은 기 추진중인 18백만 호주 달러의 장기 지원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단기생산농가 직접지원대책, 수출촉진, 가공업체 지원 등 양돈산업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산업계는 돼지고기 수입증가가 양돈산업 불황의 주원인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타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입 제한조치 보다는 양돈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효과적이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양돈산업 관련 단체들은 관세부과 또는 쿼타 적용방안과 생산자 직접 지원 및 수출촉진 지원방안 강구의 희망으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규제 완화

캐
나
다

캐나다는 오에스키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해 청정지역인 미국 각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시에, 종전까지 실시되어 온 30일간의 검

역을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검역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가격침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양돈농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동물검역규칙의 개정은 작년 12월에 단행되었는데, 이번 개정에 의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미농무부의 승인을 받은 수의사가 오에스키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해 사전에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 합격했다는 취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돼지고기 운반용 트럭은 청소, 소독, 봉인되었다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덴 '98 돼지도축 2천2백만두, 수출 더 속 늘어날 듯

지난해 덴마크의 돼지도축 두수는 약 2천2백만두로 97년 대비 약 4%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도 돼지고기 수출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EU 국가 가운데 최대 생돈수입국인 독일에 대해 거는 기대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은 주로 네덜란드로부터 생돈을 수입해 왔으나 네덜란드의 돈콜레라 발생 이후 덴마크로 수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수출금지가 일부 풀리고 미국의 러시아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덴마크의 돼지도축은 연간 백만두 이상을 도축하는 4개의 도축회사가 전체 도축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EU 지역에서도 가장 집약적인 식육산업을 구축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양돈**